

화순군, '희망 간판 드림 사업' 추진한다

3750만원 투입 사평면 전통시장거리 상가 대상 노후 간판 무료 교체·지역 상권 활성화 유도

화순군이 3750만 원을 들여 사평면 전통시장거리 상가를 대상으로

'희망 간판 드림 사업'을 추진한다. 화순군 '희망 간판 드림 사업'은

최근 전남도 주관 '2021 무료간판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추진하게 됐다. 총사업비는 3750만 원으로 전액 도비 사업이다. 사평면 전통시장 거리의 노후 간판, 무설치 업소에 대해 간판 교체와 설치비를 무료로 지원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간판 설치를 지원해 상권 활성화에 보탬이 되겠다"며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간판을 설치해 올바른 간판 문화 확산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순=박순철기자



곡성군, 2021년 성인 문해 시화전 개최

투명한 아크릴판에 시화 표현 등 가을 어울리는 전시방법 눈길

곡성군은 지난 23일부터 북방마켓 센터에서 지역 성인 문해 학습자들의 시화작품을 전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에도 공부에 대한 남다른 열의로 학습에 적극 참여한 학습자들의 시와 그림들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투명한 아크릴판에 시화를 표현하는 등

가을 하늘과 어울리는 전시방법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한편 오는 30일 토요일 곡성 북방마켓에서는 성인문해 전시회와 함께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장난감 베품시장, 프리마켓 야간개장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곡성=양해영기자

나주시, 내년도 생활 임금 시간당 9720원 올해 대비 3.7%인상

나주시가 2022년 생활임금을 올해 대비 3.7% 오른 시간당 9720원으로 결정했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지난 25일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공부문 근로자의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972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임금 노동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국내에서 2013년 서울 성북구, 노원구에서 최초 시행했으며 나주시는 2019년 관련 조례제정 이후 2020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올해 시간당 9370원에서 350원이 인상됐으며 정부가 고시한 2022년도 최저임금 9160원보다 6.1%(560원)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적용 대상자는 법정 노동 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할 경우 통상 임금을 기준으로 한 달에 약 203만1천원을 지급 받게 된다.

확정된 생활임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 기관, 민간위탁 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최저임금 상승률, 유사근로자 임금수준,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폭을 결정했다"며 "저임금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생활 보장과 생활임금의 점진적 인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나주 다도면, 나주호 수변공원 철쭉 꽃 단장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



나주시 다도면 주민들이 지역 랜드마크인 '나주호' 수변공원 꽃단장에 구슬땀을 흘렸다. 다도면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하

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마을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나주호 수변공원 경사면에 철쭉 3100주를 식재했다고 26일 밝혔다.

철쭉 식재 작업에는 주민자치위원회, 기관·사회단체 주민, 행정복지센터 직원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김용두 주민자치위원장은 "가을걷이로 분주한 일상 가운데 많은 주민들의 손길 덕분에 식재 작업을 빠르게 마무리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필요한 부분을 스스로 찾아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역량 강화에 힘써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도면은 매년 나주호 도로변 8km구간에 철쭉꽃을 식재하며 나주호, 불회사 등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4-5월 벚꽃과 철쭉이 흐드러지게 핀 아름다운 거리 경관을 선사하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장성군, 서삼초 아이들과 함께 '편백숲 핼러윈데이'

축령산 편백숲 웰니스 유학마을에서 어울림 한마당 개최

장성군 서삼초등학교에서 특별한 핼러윈데이가 펼쳐졌다. 지난 20일 서삼초등학교 전교생과 학부모들이 축령산 편백숲 웰니스 유학마을에 모여 편백숲 핼러윈 축제를 개최하며 지역민과 어울림 한마당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모암마을 주민들을 비롯해 청년회, 이장협의회, 쌀전업농회, 서삼면행정복지센터, 장성교육지원청, 국립장성성체원 등 지역민과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이 총출동해 갖가지 선물과 체험활동을 준비했다. 신난 아이들은 늑대 호박으로 핼러

윈 가면들 만들어 한껏 꾸미고, 부모님들은 정성 가득한 먹거리를 마련했다. 여기에 분위기를 한껏 올려줄 숲속음악회 공연도 더해지며 풍성한 가을밤 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농산어촌 유학학교인 서삼초등학교는 서울과 광주에서 전학한 13명의 학생들이 학부모와 함께 생활 중이다. 축제에 참여한 한 유학생은 "학교가 이렇게 재미있는 곳인 줄 전에는 몰랐다"면서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하루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삼면 김현영 면장은 "농산어촌 유학학교를 통해 유학생 가족들이 핼



복한 추억을 쌓고, 마을 공동체에도 활력이 넘치게 되어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소중한 인연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구례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창구 운영

오프라인 다음달 3일부터 신청...최대 1억 지급

구례군은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빠르고 편리하게 손실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전담창구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구례지역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적용 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및 목욕장 등 960여개소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이다. 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해례 맞춤형으로 산정되고 분기별 보상금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10월 27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3일부터 운영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전담 창구를 군청 경제협력과에 마련하여 안내 및 접수 지원할 계획이다. 구례=박진호기자

담양군, '성공면접 이미지 메이킹 취업특강'

담양군 일자리통합지원센터는 지난 27일 관내 청년들을 대상으로 '성공면접 이미지 메이킹 취업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에서는 참여자들이 면접 시 자신감을 높여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신뢰감을 높이는 이미지 메이킹, 퍼스널 컬러를

통한 본인에게 맞는 이미지 찾기 등 다양한 컨설팅을 제공했다. 교육을 진행한 담양군 일자리통합지원센터는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부터 일자리 알접 시 자신감을 높여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신뢰감을 높이는 이미지 메이킹, 퍼스널 컬러를

담양=박종영기자



아이에게 선물하는 특별한 하루

어린이

대축제

제21회 곡성어린이축제

2021.10.29. - 31.일

곡성섬진강기차마을



곡성어린이대축제

